**행2305 Note**

**◆당신의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요**

<케네스 해긴/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적 열쇠들p127>

나는 목회의 직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말하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읽습니다.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원합니다.

이는 한 영의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그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고,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임(office)을 존경하는 것입니다.

여러분은 반드시 그 직임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.

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번영을 위한 중요한 영적인 열쇠입니다.

Ω행2305. 그때에 바울이 말하니라, 형제들아, 그가 대제사장임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, 이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음이니, 너는 네 백성의 방백[아르콘:첫째,주(통치자),방백(方伯),왕(王)]을 악하게(카코스: 약하게,서투르게,악한,병든,불행하게,슬프게,아픈,욱신거리는) 말하지 말지니라(험담하지 말지니라)

바울은 그 직임을 존중했기 때문에(그 사람은 잘못했지만,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임을 존중했기 때문에) 사과를 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것을 존귀히 여기는데 축복이 있습니다.

삼상0230.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느니라, 네 집과 네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을 것이라고 내가 참으로 말하였느니라, 그러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느니라, 그것이 나로부터 멀어질지니라, 이는 나를 공경하는(카바드:무겁다,짐이 되는,존경할 만한,무겁게 하다,영광,영화롭게 하다,영화로운,영광이 되다,영화롭다,존귀,존귀하게 하다,존귀를 받다) 그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며, 나를 멸시하는 그들이 가볍게 여겨짐이라.

당신이 목사의 직임과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번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